

「국방 개혁 추진 위원회」 발족

- 軍 개혁에 민간 경영기법 도입으로 가시적 성과 기대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천용택 국방장관과 이준 국방개혁추진위원장 및 분과위원, 국방부 주요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15일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국방부 는 지난 3월17일 국방업 무보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李俊 예비역 육군대장을 비롯하여 예비역장성, 과학, 기술, 경영 등 사계전문가 9명(도표 참조)을 국방개혁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국방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군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에서는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장관 직속기구로 개혁위원회를 편성하여 6월 말까지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7월 초 국군통수권자인 김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에 추진하는 군 개혁은 군의 안정과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군 구조 개편, 인력정비 분

야는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제도개선이나 경영혁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부대와 기관의 통·폐합 등은 전투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방장관 직속기구로 잠정 편성 운영되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밑에 예비역 장성, KIDA 책임연구원, 사계 국방전문가, 과학기술 분야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 '심의위원회'와, 군 구조, 방위력 개선, 인사제도, 국방관리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편성하여, 조직진단으로부터 실행부서의 추진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독·평가함으로써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적인 요소를 쇠신해 나갈 계획이며, 각 군은 국방부의 개혁추진과 연계할

국방개혁 심의위원 명단

| 직책 | 지원기관(군) | 직(계)급 | 성명 | 비고 |
|-----|-------------|----------|-----|---------|
| 위원장 | 예비역 장성 | 예)육군 대장 | 이준 | |
| 위원 | KIDA | 부원장 | 황동준 | 경영학박사 |
| 위원 | 서강대 | 교수 | 이상우 | 정치학박사 |
| 위원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소장 | 김인수 | 경영학박사 |
| 위원 | ADD | 책임연구원 | 김영수 | 기계공학박사 |
| 위원 | 연세대 경영대 | 대학원장 | 정구현 | 경영학박사 |
| 위원 | 포스코 경영연구소 | 소장 | 오관치 | 경제학박사 |
| 위원 | 예비역 장성 | (예)해군 중장 | 임태섭 | (전)합참차장 |
| 위원 | 예비역 장성 | (예)공군 중장 | 배양일 | (전)참모차장 |

수 있도록 참모총장 직속으로 「개혁실무추진팀」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다.

군 개혁을 위해 고위장성 출신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군 출신과 함께 민간의 안보·국방분야 전문가, 과학·기술전문가, 기업경영 및 조직전문가 등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군 내외 전문가들이 작성한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은 국군 창설 이래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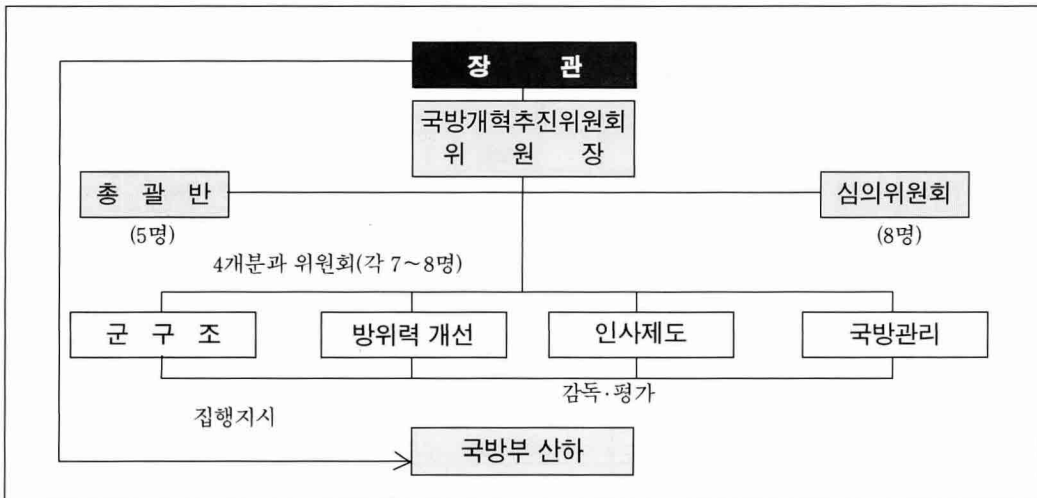
국방부가 개혁위원회에 군내·외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국방개혁의 성공

적 추진을 위해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경영기법을 군에 도입함으로써 군 개혁의 실질적인 가시화를 통해 21세기 안보환경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금번의 군 개혁에 대한 성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아래 기구편성표 참조)

李俊개혁추진위원장과 심의위원들은 지난 4월8일 千容宅 국방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위촉식이 끝나고 난 뒤 국방개혁 및 추진 중점에 대한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 향후 개혁방

국방개혁추진위원회 편성표



향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의하였다.

李俊위원장은 앞으로 개혁추진위원회를 관장하고 심의위원과 함께 개혁의 총체적 방향과 목표를 설정, 분과위원회를 지도하고 개혁분과위의 연구안을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한다.

국방개혁을 조직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장관 직속기구로 편성된 국방개혁추진위원장에 임명된 이준 위원장은 작전 및 기획, 군수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평을 들을 만큼 해박한 식견과 함께 청렴강직하고 합리적 사고를 가진 예비역대장 출신이다.

육사19기 대표화랑 출신으로 육사 졸업 후 서울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기도 한 그는 군 시절 사단장, 국방부 사업조정관, 군수본부장, 1군사령관 등을 거치하면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그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95년 예편 후에도 한국통신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군 개혁과 관련하여 천용택 국방장관과 군 개혁마인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창군 초유로 군출신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군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8 국방 추경 예산 개요

-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 6.1%에서 0.1%로 축소

지난

3월25일 국회 추경예산 심의결과 국방예산에 변동사항이 발생했다.

우선 방위력 개선 부문에 443억원이 삭감되고, 사병보급 84억원을 포함한 보급삭감이 1,896억원으로 총 2,339억원이 줄었다.

이로써 '97예산 대비 '98예산 증가율은 당초

6.1%에서 0.1%로 축소되었다.

'97년 예산 13조 7,865억원에서 '98년 당초 14조 6,275억원으로 8,410억원이 증가했었으나 추경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13조 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5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98 당초예산 대비 '98 예산 비교

(억원)

| 구 분 | '98 당초 | 추 경 조 정 | | | '98 추경 | % |
|-------|-----------|---------|----------|---------|-----------|-------|
| | | 증(1) | 감(2) | 순감(2-1) | | |
| 방위력개선 | 4조 2,886 | 5,441 | 7,525 | 2,084 | 4조 802 | △ 4.9 |
| 운영유지비 | 10조 3,389 | 3,188 | 9,379 | 6,191 | 9조 7,198 | △ 6.0 |
| 계 | 14조 6,275 | 8,629 | 1조 6,904 | 8,275 | 13조 8,000 | △ 5.7 |

'97 예산 대비 '98 예산 비교

(억원)

| 구 분 | '97 예산 | 구성비 | '98 추경 | 구성비 | 증(△)감 | |
|-------|-----------|-------|-----------|-------|-------|-------|
| | | | | | 증(△)감 | % |
| 방위력개선 | 3조 9,794 | 28.9 | 4조 802 | 29.6 | 1,008 | 2.5 |
| 운영유지비 | 9조 8,071 | 71.1 | 9조 7,198 | 70.4 | △ 873 | △ 0.9 |
| 계 | 13조 7,865 | 100.0 | 13조 8,000 | 100.0 | 135 | 0.1 |

외자조달 軍 장비 수리 부속품 국내 조달로 전환

- 수입 대체 및 기술 파급 효과 큰 품목을 대상으로 많은 특혜 부여

국방부 는 그동안 외자로 조달돼 오던 군장비 수리부속품들을 앞으로는 국내개발을 통한 내자조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5일 외화 및 국방예산을 절약하고 중소기업 보호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외화로 사온 각종 무기 및 장비의 수리부속품을 국내개발로 대체키로 하는 한편 이를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수입대체 및 기술파급 효과가 높은 함정·항공기의 통신 전자 분야 등 각종 부품 3천2백8개(7백 4억원상당)를 선정, 중소기업체를 상대로 전시한뒤 업체 개발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내자조달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현품 전시계획은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전시품목을 확대하고 조달등록업체만 참가하던 것을 일반 중소기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협조하기로 했다.

또 많은 중소기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신문공고나 관보게재, 관련업체들에 대한 서신 발송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현품전시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각군 계획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외자조달품목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고 일정기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최대한의 특혜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방 탄약정보시스템 시연회 열려

- 국방 군수시스템 정보화 사업의 1단계 사업

국방부 는 3월 31일 제1회의실에서 국방탄약정보시스템 최종시연회를 개최했다.

국방탄약정보시스템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군사력 건설과 국방경영혁신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방군수시스템 정보화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국방부는 지난 94년 11월부터 42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방부로부터 각군의 모든 탄약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기본업무를 7백46개의 단위업무로 표준화하면서 전 세대간 상호연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군 탄약 재산 현황을 실시간대로 상시 가시화할 수 있어 신속한 작전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국 탄약의 전자거래가 실현돼 국방CALS체계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군수시스템 정보화사업은 탄약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99년까지 급식, 유류, 유지물자, 의무정보시스템을 개발하며 99년부터는 장비정비 및 수송시스템 개발에 착수, 오는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